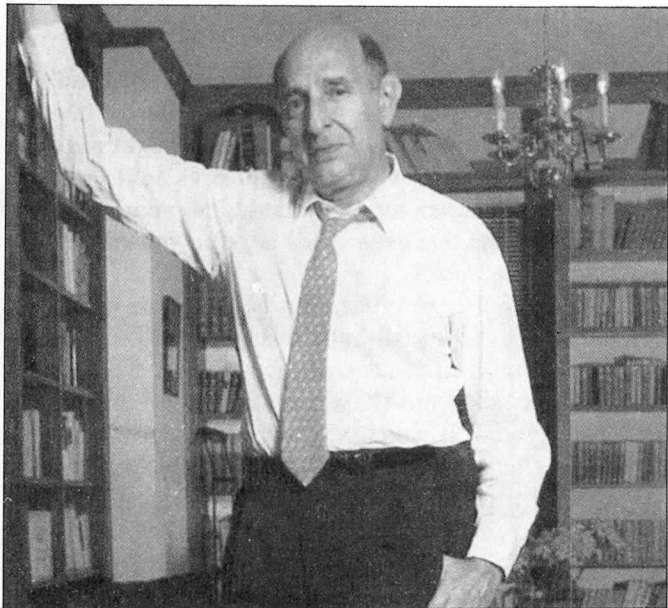


# “古典 교육으로 대학교육 구하자”

## 교육개혁 논쟁의 도화선된 「미국지성의 종식」



미국의 교육계에 논쟁을 몰고 온 「미국지성의 종식」의 저자 앨런 블룸 교수.

전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교육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내일을 짊어지고 나아가 갈 인재는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고 다듬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의 교육계에 충격의 회오리를 몰고 왔던 「미국지성의 종식」(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이 출간 1주년이 가까와 오며 따라 또다시 교육계 안팎의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시카고대학 정치철학교수인 저자 앨런 블룸(58)은 이 한권의 책으로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됐고, 현재까지 80만부가 팔려 나가는 경이적인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지성의 종식」에서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은, 오늘날 미국의 고등교육이 학생들의 정신을 황폐화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교육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마약중독과 노이로제·공허함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가와 실용주의에 치중된 대학의 교육과정을 향해 많은 이들은 근심의 눈길을 보내왔다. 저자 블룸교수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지성의 몰락현상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서구문명의 기초’ 즉 古典을

중심으로 한 인문교양교육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이 출간됐을 당시 「뉴욕타임스」는 “전기충격요법과도 같은 효과와 힘을 지닌 놀라운 책”이라고 평가했고, 「워싱턴타임스」 역시 “미국 知的 풍토의 꺾질을 뚫고 들어가 그 아래 숨겨진 혼란상과 공허성을 밝혀내고 그 이유를 규명한 책”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비판적인 반응 역시 이에 못지 않게 격렬해서, 서양고전에 대한 강조와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비판적 자세로 인해 블룸교수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제불능의 ‘엘리트주의자’며 ‘성차별주의자’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는 그를 콘트라 스캔들의 주역 올리버 노스 대령에 비유하며 ‘위험천만한 극우론자’로 평했으며, 러트거스대학의 벤자민 바버교수는 “이제까지 일반독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들 중에서 가장 반민주주의적인 책”이라고 평가를 내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블룸교수는 최근 「타임」誌와의 인터뷰에서, “지혜와 도덕을 갖춘 엘리트 없이는 지도자도 있을 수 없다” “급진적인 페미니즘

은 인류의 역사전체를 여성의 노예화라는 관점에서 왜곡하고 있으며 기존의 문학을 거부함으로써 이제까지 행해져 왔던 인문교육과정의 핵심에 도전하고 있다”고 자신의 비판적 어조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계급 및 성적 우월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형성하고 있는 각 집단이 각각 그들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고 인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상호인식과 조화에 이를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비난을 의식했었던지, “요즘 학생들은 인생의 목적 그 자체에 대한 숙고보다는 권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화부터 내곤 한다. 이러한 태도로는 진지한 토론을 가질 수 없으며, 이는 새로운 종류의 사고통제다”라고 지적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책으로부터 진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있다. 책이란 그저 이데올로기나 신화이며 정치적 도구라고 믿을 뿐이다”라고 말하며, 과학자가 칸트와 헤겔을 논하며 철학자와 시인이 과학을 논할 수 있는 개방적인 지적 풍토, 오늘날 서양 문명을 완성시킨 주옥같은 고전작품들을 통해 인생의 진실을 탐구하는, 보다 근본주의적인 교육으로의 복귀를 역설하는 그의 주장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그레임 그린 신작소설 발표

현존하는 영국 최고의 작가 그레임 그린은 84세의 나이에 신작소설을 내놓아 새삼 문단 안팎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평론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대위와 적수」(The Captain and Enemy)야말로, 가공의 세계로 독자를 이끌어 나가는 그린 특유의 힘으로 충만돼 있는 작품이라고 평하고 있다.

“오늘 나는 22번째의 생일을 맞았다. 그러나 내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는 생일은 12번째의 생일날이었다. 축축하고 안개 낀 9월의 그 날 나는 처음으로 대위를 만났다...”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나’라는 話者의 회상과 관찰에 의해서 전개된다.

소설의 전반부에서, 화자인 ‘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대위’라는 미지의 인물과의 만남을 회상한다. 당시 소년은 런던의 허름한 지하 구석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곤궁하게 살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지 오래됐으나 아직도 전쟁의 암울하고 절망적인 분위기가 가시지 못하고 있던 1950년대 당시, 대위는 소년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한다. 소년의 어머니와 대위는 옛 애인이었으며, 오랜만에 런던으로 돌아온 지금 가까이 그녀의 보호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두 사람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대위는 가끔 보석도둑으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먼곳에 피신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소년의 어머니에게 돌아와 극진하고 따뜻한 애정을 표시하곤 했다.

그러나 모자의 보호자로서 행동하는 대위의 존재에 대해 소년은 감정의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된다. “대위와 어머니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그가 혹시 내 친아버지는 아닐까?” 대위를 향한 소년의 미묘한 거부감 밑바닥에는 이런 의문들이 그 자신도 모르게 짙고 있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 지방지의 기자로 사회생활을 하던 ‘나’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다. 이때 그는, 대위가 파나마에 거주하고 있으며 항상 그렇듯이 다정한 편지와 함께 꼬박꼬박 어머니 앞으로 돈을 보내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대위란 존재에 대한 새삼스런 호기심과 알지못할 충동에 사로잡혀 파나마를 찾은 ‘나’는, 미국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위험천만하면서도 다채로운 정치적 음모의 세계로

빠져든다. 후반부로 접어들면, 이 소설은 소모사정권 치하의 니카라과아 실태와 엘살바도르의 섬뜩한 살인부대, 그리고 파나마운하조약체결을 둘러싼 국가들 간의 암투로 전개되며, 파나마의 토리호스정권을 지지하던 대위가 결국에는 영웅적인 죽음을 맞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암울한 분위기의 영국과 뜨거운 정열의 땅 남미 양쪽을 넘나들며, 연애소설적인 애뜻한 분위기와 드릴러 소설의 팽팽한 긴장감을 적절히 배합하는 그린의 능력이 정말 감탄스럽다고 평론가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 리처드 버튼의 일기장 공개돼 화제

당대 최고의 연극배우로 손꼽혔던 리처드 버튼의 일기장이, 최근 전기 「리처드 버튼: 1925-1984」(멜빈 브래그 지음)의 출간을 앞두고 일부 공개돼 호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의 이 연극배우는, 연극에 못지 않게 모국어인 영어를 지극히 사랑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1970년 여름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원 신분으로 연구와 강의에 몰두했을 당시, 그는 “아름다운 여성과 감미로운 꿈에 의해서 흥분을 느끼는 것처럼 나는 항상 영어에 흥분을 느끼곤 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들이 인간에 의해 창조된 가장 훌륭한 언어로 말하고, 쓰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버튼은 엘리자베드 테일러와의 결혼생활 중에도 항상 책을 사랑해서, 어딜가나 셰익스피어전집과 전기물, 역사책, 사전은 물론 코란과 세계지도까지 갖고 다녔다고 한다.

그는 1965년부터 84년 뇌출혈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일기쓰기를 계속해왔는데, 이번에 공개된 일기를 통해 모국어에 대한 그의 애정과

그에 못지 않은 뛰어난 필력을 재 확인할 수 있다.

버튼은 자신의 사생활과 모든 감정을 일기 속에 대단히 솔직하고도 상세하게 기록해놓았는데, 이상스럽게도 연기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주로 주변사람들에 대한 관찰과 사랑·죽음·분노·좌절 그리고 자신의 알콜중독에 관해서 적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일반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엘리자베드 테일러와의 결혼생활.

두 사람은 대대적인 스캔들 끝에 1964년 결혼했는데, 67년 11월19일 버튼은 다음과 같이 일기에 적고 있다.

“나는 평생 엄청나게 행복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가장 큰 행운은 엘리자베드이다. 그녀는 나를 도덕적이면서도 결코 딱딱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꿔냈다. 그녀는 수줍으면서도 위트가 넘치고 총명한 여배우다.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그녀를 사랑하겠다.”

그러나 테일러의 끊임없는 소유욕과 버튼의 자기파괴적인 알콜 중독으로 인해 두사람의 관계는 점차 파국으로 치닫고 만다.

69년 1월10일 일기에서 그는 “술에 취해 여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이



즐거웠던 시절의 리처드 버튼과 엘리자베드 테일러.

살인적인 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절망적인 심경을 토로하는가 하면, 또다른 일기에서는 “지난 6~8개월은 악몽이었다. 그 악몽의 반은 내가, 나머지 반쪽은 엘리자베드가 만들어 냈다. ...나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오두막에서 혼자 살기를 원하고 그녀 역시 남동생과 함께 하와이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로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한다.

못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기

도 했던 그들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안식과 평화를 찾지 못했던 듯, 버튼은 “엘리자베드가 당신을 사랑할 때 그녀는 당신의 세계 그 자체가 되지 않고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지만 나는? 나는 나 자신의 방식을 지녀야 한다”고 적고, 그녀와의 이혼에 동의하게 된다.

위대한 배우라기보다는 절망하며 고뇌했던 한 평범한 사나이의 일기장을 들춰보며 독자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한가지 사실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던 유일한 사랑은 바로 글쓰기였다는 사실이다.

## 정계투신 선언한 바르가스 요사

페루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52), 그는 과연 창작의 붓을 꺾었는가.

조국 페루와 라틴아메리카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날카로운 작품들로 남미권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갈채를 받아 온 바르가스 요사가, 최근 알란 가르샤 현정권의 은행 및 보험회사 국유화조처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정식으로 정치계 투신을 발표했다. 그는 우익의 두 정당을 하나로 합쳐 ‘민주전선’을 형성하는 등 정치일선에서 바쁘게 뛰고 있는데, 많은 이들은 그가 1990년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설지도 모른다고 내다보고 있다.

바르가스 요사는 최근 「뉴스위

크」지와의 회견에서, 그의 시간과 에너지를 정치에 쏟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1980년 이후 민주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악화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폭력이 급증하게 돼, 민주주의의 실패와 마르크시즘의 득세를 초래했다”고 조국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민주주의의 골격 안에서 페루의 정치발전을 피하는 동시에 경제를 부흥시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 민주전선의 정치노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상당히 뜨거워, 최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32%의 높은 지지율을 획득하기도 했다.

현정권에 대한 실망과 함께 바르가스 요사로 향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그는 “나에게 있어 일시적으로라도 집필을 멈춘다는 것은 커다란 희생이다. 그러나 때때로 당신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위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면서 “민주전선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 즉시 창작활동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털어 놓기도.

—오애리 기자

## 「뉴욕타임스 북 리뷰」 베스트셀러 목록 88년 10월 16일 현재

순위	소설	비소설	페이퍼백 소설	페이퍼백 비소설
1	<b>THE CARDINAL OF THE KREMLIN</b> 톰 클랜시(퍼트남) 소련에 붙잡혀 있는 미국정보원을 구출해내기 위한 CIA요원 잭라이언의 활약	<b>A BRIEF HISTORY OF TIME</b> 스티븐 W. 호킹(밴텀) 영국의 물리학자 호킹의 우주론	<b>THE DARK TOWER: The Gunslinger</b> 스티븐 킹(폴립/NAL) 악당을 추적하는 한 젊은이를 소재로 한 시리즈 제 1권	<b>SMALL SACRIFICES</b> 앤물(시네트) 오레곤 주 마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2	<b>BREATHING LESSONS</b> 앤 테일러(크노포트) 28년간의 결혼생활의 여러면이 자동차여행기에서 드러난다.	<b>THE RAGMAN'S SON</b> 커크 더글라스(사이몬 슈스터) 이민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영화배우로 대성한 커크 더글라스의 자서전	<b>MURDER IN THE CIA</b> 마가렛 트루만(포켓) CIA요원인 여주인공이 부다페스트에서 동료요원의 죽음을 파헤친다.	<b>LOVE, MEDICINE &amp; MIRACLES</b> 버니 시겔(페레니얼/하퍼 & 로우) 환자의 정신과 감정의 중요성을 다룬 글
3	<b>TILL WE MEET AGAIN</b> 주디스 크란츠(크라운) 파리와 LA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 여성과 그녀의 두 딸 이야기	<b>THE LIVES OF JOHN LENNON</b> 앨버트 골드만(모로우) 전설적인 록큰롤 스타 레논의 사생활을 밝힌 전기	<b>HEAVEN AN HELL</b> 존 제이크스(델) 남북전쟁 직후를 배경으로 한 두 가정 이야기	<b>THE ROADLESS TRAVELED</b> M. S. 팩(터치스톤/S & S) 정신분석 의사의 심리학 및 영감에 관한 글
4	<b>ALASKA</b> 제임스 A. 미치너(랜덤 하우스) 미국의 49번째 주 알래스카의 역사를 소설화	<b>THE BOZ</b> 브라이언 보즈워드/릭 라일리(더블데이) 시애틀 호크스 축구팀 선수 보즈워드와 밝힌 자신의 생과 사포즈관	<b>HEAVEN CENT</b> 피어스 앤소니(에이본) 실종된 정보원을 찾는 한 왕자의 모험	<b>THE POWER OF MYTH</b> 조세프 캠벨/빌 모이어스(더블데이) 인간과 삶과 신화의 관계
5	<b>SPOCK'S WORLD</b> 다이안 두에인(포켓) 혹성 별 칸과 우주선 엔터프라이즈호의 선장 스포크의 비밀, 「스타트랙」 시리즈	<b>SURVIVING THE GREAT DEPRESSION OF 1990</b> 라비 바트라(사이먼 앤드 슈스터) 경제적 난국을 헤쳐나가는 법	<b>THE MAIDEN</b> 쥘드 데버로(포켓) 전쟁터에 뛰어든 공주와 한 남자의 사랑과 정열	<b>SPYCATCHER</b> 피터 라이트/폴 그린그래스, 전 영국비밀첩보원의 자서전
6	<b>KOKO</b> 피터 스트롬(더튼) 연속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베트남 참전용사 이야기	<b>SENATORIAL PRIVILEGE</b> 레오 다모어(레그너리 게이트웨이) 1969년 차과퀴 사건을 파헤친 현직기자의 보고서	<b>A SOUTHERN FAMILY</b> 게일 구드윈(에이본)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한 가정에 밀어닥친 죽음의 영향	<b>VEIL</b> 볼 우드워드(포켓) 1981년부터 87년까지 CIA 최고 책임자였던 윌리엄 케이스의 활동
7	<b>THE SILENCE OF THE LAMBS</b> 토마스 헤리스(세인트 마틴스) FBI 수습사원인 젊은 여성이 연속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한다.	<b>THE DUCHESS OF WINSOR</b> 찰스 힉렐(맥그로 힐) 에드워드 8세와 결혼한 심프슨부인의 생애	<b>TEAN YANKEE</b> 헤롤드 코일(버클리) 3차 세계대전동안 유럽 소재 미국 탱크 회사의 공훈	<b>I'M WITH THE BAND</b> 파멜라 데스 바레스(조우브)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며 귀중한 시간과 정열을 낭비했던 저자가 털어놓는 체험
8	<b>THE BONFIRE OF THE VANITIES</b> 톰 울프(파라, 스트라우스 & 지루) 도시의 정글에서 곤경에 빠진 증권거래인	<b>LANDSLIDE</b> 제인 마이어, 도일 맥마누스(휴튼 미플린) 1984~88년 대통령선거에 관한 워싱턴 주재기자들의 보고서	<b>HER MOTHER'S DAUGHTER</b> 마릴린 프렌치(벨런타인) 4세대 걸친 여성들의 이야기	<b>KEEPING SECRETS</b> 수잔 소머즈(위너) 알콜중독 부친 밑에서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던 여배우가 자신의 반생을 되돌아 본 전기
9	<b>LOVE IN TIME OF CHOLERA</b> 가브리엘라 가르사 마르케즈(크노포트) 평생동안 한 여인만을 사랑하는 콜롬비아 시인의 애절한 이야기	<b>GENERATION OF SWINE</b> 헨터톤 S. 톰슨(서미르) 時評	<b>LONIGAN</b> 루이스 라무어(밴텀) 개척시대의 삶을 주제로 한 단편선	<b>IT'S ALL IN THE PLAYING</b> 셸리 맥클레인(밴텀) TV시리즈 "Out on a Limb" 뒷 얘기
10	<b>THE SHELL SEEKERS</b> 로자먼드 필처(세인트 마틴스) 미술작품을 둘러싸고 영국 한 가정에서 3 세대에 걸쳐 일어나는 이야기	<b>TRANSFORMATION</b> 휘틀리 스트리버(비치트리/모로우) 지능을 갖춘 외계인과의 모험	<b>MEMORY PRIME</b> 가, 주디스 리브스-스티븐스(포켓) 「스타트랙」 시리즈 최근작	<b>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b> 앨런 블룸(터치스톤/S & S) 미국 인문 교육 비평론